

“해방 이후의 문학; 아버가 이데올로기,,

군대를 가도 장교가 될 수 없고,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고등고시에 소위 패스를 해도 임관이 안됩니다. 이런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게 중밖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 <꿈> 일부 -

아버지의 좌익활동이 드러난 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감시와 핍박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반공정책이 이어지면서 붉은 내력이 있는 자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들은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자신의 붉은 뿌리를 지우기 위한 행동들을 단행하기도 했다.

김성동은 아버지, 어머니 등의 좌익활동에 의해 ‘진빨’로 규정된 자였다. 그의 소설에는 ‘진빨’로 낙인찍히며 수난을 받고 방황했던 사적인 체험도 드러나고, 이러한 삶의 기원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만다라> 이후 : 김성동의 문학세계는 구도적?

사대의 종이 된 역사가들이여! 시산군이충, 신하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는 봉건시대 도덕률로 그를 규탄하고, 이소사대외천,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는 것은 하늘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는 노예적 태도로 위대한 영걸의 업적을 부인하니, 이 나라 조선의 명운이 어디서부터 비릇되었는가 알 만한 노릇인저!

-<고추잠자리> 일부-

대체로 김성동 소설 연구는 <만다라>에 집중되어 있다. 작가의 개인사, 소설에 담긴 구도의 과정이 기존 연구의 중점이 되었다. 김성동 소설을 종교적인 세계에 국한할 수 없다는 관점을 내세우며 작가의 자전적 동기, 아버지와와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후기 소설에서 ‘제망부가’, ‘제망모가’ 등의 표지를 내세운 소설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성동의 소설을 부모에 대한 추도로 볼 만한 지점도 있다. 그러나 김성동의 후기 소설들은 ‘망각된 역사적 주체’와 그들의 염원이었던 ‘새 세상’을 복원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점에서 김성동의 소설을 개인사에 국한하여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의 소설은 ‘역사를 만드는 이의 정체성’을 문제시하며 바깥에 있던 목소리를 소환하는 정치적인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나의 소설은 문학성을 가미한 다큐이다.,,

“위대한 지도자 박헌영 똥무 만서이!” “친왜 친팃쇼 및 민족반역자렬 제외헌 죄선 민취지이 림시증부 수립척진 만서이!”

김 씨 어 머 니 는 족 보 에 오 른 ‘진 빨’ 이 었 다. 1969년 대검찰청 수사국에서 비매품으로 박아낸 <좌익사건실록>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 그 책은 각각 삼백면이 넘는 두께였는데, 「여맹원 한전희 북괴 고무찬양 사건」이라는 제목이다. 한전희씨는 모르고 있지만 김씨는 그 책을 본 적이 있다.

-<민들레꽃반지> 일부-

김성동 후기 소설에는 골령골,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좌익의 역사들이 보다 전면적으로 제시된다. 1983년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전면화한 <풍적>은 연재 중단 등을 겪은 뒤 미완의 장편소설이 된다. 이후 <왕장승딸>, <고추잠자리>, <멧새 한 마리> 등을 통해 김성동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역사의 한축을 가시화하기 위한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다.

랑시에르는 사진이나 영화 등은 비가시성을 통해 비존재들을 비의미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1950년대의 골령골 사진 등 역사의 무명들을 증언한 시선들은 은폐되거나, ‘사람이 아닌 것’(<엄마와 개구리>)처럼 왜곡되어 왔다. 그의 소설은 소멸되어 가는 역사적 주체를 제시함으로써 비인간으로 간주되었던 이들에게 ‘인간성’을 돌려주고, 외세에 저항하며 주권을 지키려 했던 자들의 정당성을 회복시키는 시도로 기능한다.

“혁명가가 사라진 시대에 스러져간 혁명가들의 이야기; 그들이 민족의 양심이고 힘의 원천입니다.”

더불어 함께 일해서 더불어 함께 먹고살자는 좌익사상이 왜 잘못이라는 말인가. 부자도 없고 가난뱅이도 없이 모두가 똑 고 르 게 살 수 있는 고 루 살 이 세 상 을 만 들 자 는 공산주의 사상이 왜 잘못이라는 말인가. 8.15 해방을 맞아 한 여론조사에서 90퍼센트 위로 절 대 적 지 지 를 받 았 던 조선공산당이였다.

-<멧새 한 마리> 일부-

제헌헌법은 ‘건국강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경제적인 평등을 중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건국 이념은 한국전쟁을 겪으며 약화되었고, 1954년 헌법이 개정되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스러져간 혁명가들’을 서사화하는 김성동의 후기소설은 남한의 공산주의화를 선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역사의 흐름 안에서 민중들은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세상을 꿈꿔왔다. 연개소문부터 왜정 등의 역사를 거슬러감으로써 김성동은 ‘스러져간 혁명가’들의 사상이 주권을 지키고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 민족의 염원과 연결됨을 발견한다.

김성동의 후기소설은 대화, 토론 등 다양한 담화양식을 활용하여 권력이 은폐하고 왜곡했던 기억들을 재구성하고 복원해 나간다. 잃어버렸던 목소리들이 발화되며 소음을 야기하는 것이 김성동 후기 소설이 실천하는 시끄러운 민주주의의 방식이다.